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속도'

익산시, 4개 의약단체와 협약 맺어...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로 촘촘한 지역돌봄 체계 구축

익산시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거주지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익산시는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의약 관련 4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이태훈 익산시의사회 회장, 임태형 익산시한의사회 회장, 차성화 익산시 치과의사회 회장, 김현수 익산시약사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건강·의료·복지 분야가 통합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익산시는 대상자 발굴과 신청 접수, 서비스 연계 및 행정적 지원을 맡는다.

각 단체는 시범사업 안내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참여 유도, 상담 및 돌봄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역 통합 돌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지난달 통합 돌봄 민관추진단(T/F)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기반을 다지고 있다.

시범사업은 정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의료·요양·복지 등 분절된 서비스를 지역 단위로 통합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를 통해 고령자, 돌봄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물론 가족의 돌봄 부담도 경감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주거지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익숙한 생활터전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75세 이상 고령자 중 요양병원 또는 시설 입원을 고려하고 있는 경제성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 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대상자 전수조사 및 발굴 등을 진행한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협약은 민간의 전문성과 행정의 공공성을 결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돌봄 모델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익산이 고령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촘촘한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국립군산대, 롯데몰 팝업스토어 열어 '눈길'

대기업-지자체-대학 간 상생 협력... 지역 창업기업 판로 확대 기여

국립군산대는 16일 2025년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인 '롯데몰 연계 군산시 창업가 팝업부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창업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에 나섰다

이번 프로그램은 군산시 청년들과 함께 진행한 상생협력 프로젝트로, 국립군산대 창업지원단에서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창업기업들이 대기업과 연계해 지역 내 유통채널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지역 내 유망 창업기업 15개사가 참여했으며, 총 3개사의 창업기업을 선발해 지원했다.

주식회사 다이브택(대표 최은영)은 직접 개발한 '스타리아 팝업트프 캠핑카'와 캠핑용 자동차 부품을 선보이며, 차별화된 기술력과 디자인으로 캠핑 애호가들의 인기를 끌었으며 농업



회사법인 주식회사 공동체공간수작(대표 이진영)은 지역 재료를 활용한 프리미엄 전동주를 판매하며,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연령층의 호응을 얻었다. 주식회사 달달구리(대표 이도원)는 원주의 농특산물인 생강, 딸기, 꽃감을 활용한 리얼버터바를 판매하며, 지역의 특화 제품으로 눈길을 끌었다.

한편, 국립군산대 창업지원단은 지역 내 창업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전국 배구 꿈나무 열전' 익산보석배 배구대회 성료

익산에서 전국 배구 유망주들이 기량을 펼치며, 뜨거운 열정과 감동의 경기를 선사했다.

익산시는 실내체육관, 남성고, 전 북기계공고에서 진행된 '2025 익산보석배 전국중·고 배구대회'가 7일간의 열전을 펼친 끝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중·고배구연맹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배구협회와 익산시체육회, 익산시배구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달 7~13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1,600여 명의 선수와 지도자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익산 지역 학교 중에서도남성고등학교는 결승에서 제천산업고등학교에 0:3으로 패하며 아쉬운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선수들의 끈질긴 투지와 팀워크가 빛났다.

남성중학교는 조별리그에서 세트스코어 1점이라는 미세한 차이로 8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열정적인 경기로 관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여름철 호우 대비 안전사고 사전 예방 총력

익산시가 여름철 호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와 함께 지역 교통신호 시설물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추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발생할 수 있는 누전이나 합선 등 전기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실시됐다.

시는 신호등과 경보등 등 1,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전기 배선 상태 △누전차단기 작동 발견된 여부 △접지저항 측정 △외관 이상 여부 등 주요 항목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부작합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정비를 완료해 교통신호기의 안전성을 높였다.

시는 지속적인 교통신호기 안전 진단을 통해 여름철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시민과 참여형 집중안전점검 추진

6일간 공공·민간시설 130곳점검

익산시가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안전점검을 추진했다.

익산시는 16일 '2025년 집중안전점검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약 두 달간 진행된 점검 결과와 개선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점검 내용과 조치 현황이 공유됐으며, 시설별 후속 조치 계획 수립 등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집중안전점검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됐으며,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자율안전점검 실천 확산을 통한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건축시설, 다중이용시설, 교량 등 공공·민간시설물 총 14개 분야 13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운영됐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가 이뤄졌고, 전체의 34%에 해당하는 45개소는 장기적 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수·보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점검대상 외에도 주민신청제를 통해 26개소를 추가로 점검해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2024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군산시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35일 동안 '2024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광업·제조업 부문의 지역별 분포 △산업활동 형태 △국민소득 추계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관련 산업의 연구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관내 종사자 10인 이상의 모든 광업·제조업 사업체이며, 조

사항목은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영업비용·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연간 품목별 임가공(수탁 제조) 수입액·유형자산 등 13개 문항이다.

조사 방법은 전문 교육을 이수한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나 대상 사업체가 비대면 조사를 원하는 경우 전화조사,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한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의원들, 5분 발언 잇따라

환경보 의원, 주택 건설사업 승인 시 인구·가족·주택 수급 분석

설경민 의원, 원포트 지정에 따른 군산시 주도권 확보 방안 마련

16일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 제 27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의원들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환경보 의원은 군산시는 지금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다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현재 군산시의 빈집 규모는 약 3,672 가구로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출로 빈집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흉물스러운 빈집은 도시의 활력을 앗아가고, 범죄와 안전사고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쉬우나, 군산시에서는 14개 단지 5,882세대의 공동주택이 시공중이며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한 18개 단지 11,631세대의 사업 승인도 이미 난 상태인데 이게 과연 누굴 위한 행정이나고 되물었다.

또한, 군산시는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으며 고령화가 심각한 도시인데 신규 아파트를 쏟아붓듯 승인하면서 기존의 빈집은 방치되고, 구도심은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데 새 아파트 공급으로 구도심 수요는 더 줄어들고 이미 비어있는 집들은 더욱 폐허로 남게 될 뿐이라고 지적하며 청양군과 강진군의 빈집 정비 우수사례를 들며 군산시는 빈집이 가장 많은 도시라는 오명을 받고도 빈집 정비와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환경보 의원

설경민 의원

이어 승인 권한은 시민을 위한 권한이라며 승인 이후 미분양과 착공 지연,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재정적 피해를 감당할 사람은 바로 군산시민이라며 앞으로 주택 건설사업 승인 시 인구·가족·주택 수급을 철저히 분석해 필요없는 공급은 승인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승인된 사업장이라도 공공의 안전과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기한 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승인 취소나 재검토를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다음으로 설경민 의원은 지난 5월 해양수산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해 '군산항'과 '새만금 항'을 통합한 '새만금 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함으로써 두 항만은 '원포트(One-Port)' 전략 아래 하나의 광역항만체제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라며 군

산시민 모두가 축하해야 할 운영 방식의 결론이 내려졌지만 새만금 항만의 운영권은 군산시가 아닌 군산 지방해양수산청에 있고 2호 방조제 등 관할권이 김제로 지정된 상황에서 물리적 연결 구조 대부분이 이미 군산시 통제 밖에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그동안 군산시의 대응전략이 매우 부실했으며 관할권 분쟁 권한이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새만금 관할권 관련 주요 결정은 모두 김제에서 유리하게 적용돼왔으며 이는 전략 없이 대응해 온 결과이며 더 이상 이런 논리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관할권 결정에 있어 기존 중분위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그 논리를 새만금 항만에 그대로 적용하지는 것 △새만금항 위치는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리 인근'이라고 명시할 것 △'새만금항관리과' 부서 신설·과장급에 개방형 직위로 외부에서 전문인력 영입·사무소 위치는 신항과 새만금 일원으로 해서 새만금항의 주체임을 새로 구성되는 중분위에 알릴 것을 제안하며 군산시와 의회, 국회가 각자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부와 언론을 포함한 외부 협력 주체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수립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인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